

CREATION TRUTH



ACT NEWS

ITCM

지난 2월 17일 7 명이 참가한 제 2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Truth, 창조사역 집중훈련)을 이재만 부회장의 세미나 “성경을 믿은 과학자들”을 끝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8 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새롭게 무장 된 젊은 청년들이 펼쳐 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지난 1기에 이어 2기 참가자가 대부분 한동대 학생들이었는데 이번 2기 참가자들이 힘을 더하여 한동대 창조과학 동아리인 두두스에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커리큘럼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 겨울과 여름에 8 주간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대학생 이상의 크리스천이면 심사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



지구촌교회 창조과학탐사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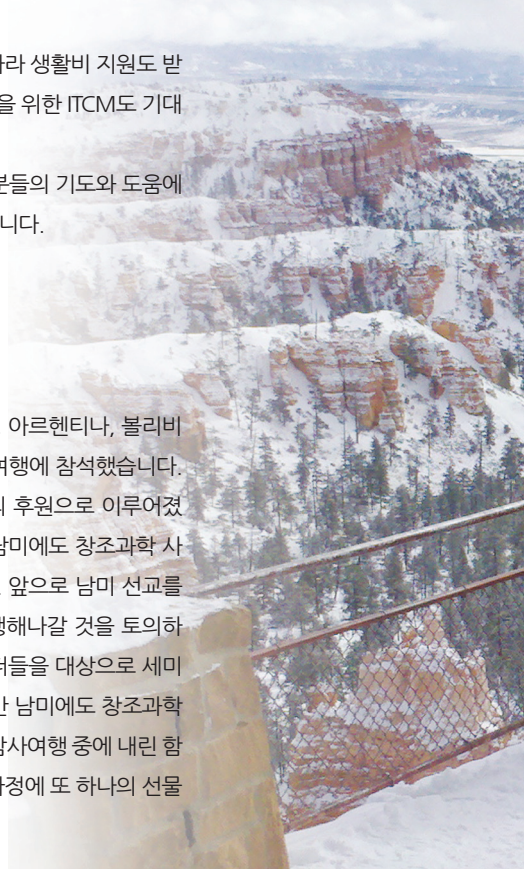
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경우에 따라 생활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EM 2세들을 위한 ITCM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CM이 더욱 활발하여지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에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남미 선교사

지난 2월 12-15일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 선교사님 가족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남미에도 창조과학 사역이 절실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남미 선교를 위해 창조과학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것을 희망했으며, 조만간 남미에도 창조과학의 씨앗이 뿌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탐사여행 중에 내린 함박눈은 눈을 보지 못했던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유타 베다니 침례교회

지난 2월 25-29일 유타 베다니 침례교회(담임목사 차경태)에서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본 교회인 Salt Lake City에서 출발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스케줄로 진행되었습니다. 5년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Bryce Canyon을 중심으로 노아홍수에 대한 증거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노아홍수에 이어서 발생한 빙하시대의 증거를 확인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지구촌교회

지난 2월 20-23일 서울 지구촌교회(담임목사 조봉희)에서 나흘간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청년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구촌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창조과학이 다음 세대



남미 선교사 가족들의 창조과학탐사여행



유타 베다니교회 빙하시대 탐사여행

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탐사여행이 창조사실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개인모집 창조과학탐사여행

매년 여름 실시하는 두 차례의 창조과학탐사여행 개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6월 21일(목) - 23일(토)이며, 그랜드캐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창조과학탐사여행 프로그램은 7월 19일(목) - 21일(토)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랜드캐년으로 떠나는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추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웹페이지 (www.hisark.com) ACT Event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지원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최우성 박사는 2월 24일- 26일 뉴저지에 있는 NJ Christian United Christian Academy 학생들의 봄철 수련회에서 8 번의 세미나를 인도 하였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인 이사립 중고등학교(이사장 신정하 장로)는 현지 학생과 외국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의



봄철 수련회의 일환이었는데 37 명의 학생들이 창조와 창조주를 더 잘 알게 되고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NJ Christian Academy에서도 동부지역에 창조과학을 소개하고 싶은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침반교회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3월 2-4일 사흘간 남가주의 나침반 교회(담임목사 민경엽)에서 5개의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나침반 교회는 오는 7월 탐사여행을 계획했으며, 2세들에 대한 세미나와 탐사여행도 희망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 한국, 대만, 일본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오는 4월 7일 - 5월 7일 한 달간 한국, 대만, 일본 순회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귀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산 영도 연합집회 등 교회, 대학교, 선교단체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일본은 Love Creation의 사전 준비에 맞추어 각 도시 순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드러나기를, 그리고 충충한 일정에 영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역 단신들

- “창조주 하나님” 세미나가 열바인 온누리교회(담당목사 권혁빈)에서는 매 주일 10시 45분에, LA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이정엽)에서는 오전 11시에 7 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 3월 25일-4월 15일 매 주일 12시50분에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매 주 강연 주제는 노아홍수 전기/ 노아홍수 후기/ 빙하시대/ 공룡과 수명 입니다.
- 미주장로교신학대학과 미주성결교신학대학에서 최우성 박사의 봄학기 강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 노회성 사모의 어린이를 위한 미주복음방송(AM 1190)의 창조과학 프로그램 “하나님이 만드셨어요”가 지난 2월 12일부터 매 주일 9:45에 방송 됩니다. 노회성 사모는 창조과학선교회의 인턴쉽(현재는 ITCM) 1과 2 과정을 모두 마친 과학 교사입니다.
- 최우성 박사의 “창조과학칼럼”이 미주복음방송(AM 1190)에서 매 주 토요일 1시 45분에 방송 되고 있고, 미주크리스천신문에도 매주 연재 되고 있습니다.
- 이동용 박사가 인도하는 시카고 헬로십교회 20주 과정(1월 8일 개강)의 성인주교 창조과학교실이 매주 10: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카고 지역의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 12기가 4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엑서더스 교회(담임 이철원 목사)이며, 수강 문의는 847-322-6426, 847-322-6426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잖아요?

지난 칼럼에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든 목적은 자신이 만든 시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다는 것(창 1:14),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루었다. 또한 우주와 별들 속에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심어놓음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형상인 인간의 귀중함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도 함께 다루었다.

UFO와 성경을 언급할 때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성경에서 UF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잖습니까?” 즉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으니 “있다, 없다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논하기 앞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UFO나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왜 발생했는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가? 이는 성경이 쓰여진 지 한참 후인 최근에 그것도 우주가 수십 억년 되었다는 진화론의 영향에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위와 같은 자세는 어떤 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꼭 삼위일체 세 분만이라고 해야 하는가? 다른 신들도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닌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눅 3:22). 이때 세 분이 모두 등장하셨다. “내(예수님)가 아버지(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 이때도 세 분이 모두 등장하신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총 동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2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만일 (성부)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세 분께서 모두 등장하신다.

단지 위에 소개된 성경 구절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를 말하고 있다. 이는 창조자 세 분의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어 인간의 귀중함과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는 창조자 세 분 모두가 등장하실 만큼 우리는 귀하고 유일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만약에 세 분의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 또한 왜곡시키게 된다.

UFO에 대하여 침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존재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하나님이 올려 놓은 인간의 위치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성경은 UFO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왜 성경에서는 외계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이 침묵한다고 하는 말은 우회적 표현일뿐 이미 UFO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UFO에 대하여 침묵하자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에게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수백 억년의 우주나이를 말하는 빅뱅이론과 수십 억년의 진화순서를 말하는 지질시대표와 같은 오랜 연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을 함께 타협하려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다. 앞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우주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외계인이 그렇게 먼 별에서 왔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 “하나님께서 창조와 멸종을 진화순서로 반복했다”는 다중격변론을 주장하는 양승훈 교수와(창조와 격변, 2006, p.132) 이를 함께 지지하는 조덕영 목사(과학과 신학의 새로운 논쟁, 2006, p. 161)이다. 다중격변론은 인간의 창조와 죄악 이전에 수많은 멸종을 인정해야 하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론이다. 이들은 수백 억년의 우주나이를 믿고 성경의 창조기록을 무시한다. 그러므로 UFO에 대하여도 회색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중격변론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킨 진화론과의 타협이론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UFO에 대하여도 관대하다.

“하나님이 참으로(really)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사탄은 UFO에 대한 태도에도 이 첫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은가? “인간만이 정말로 유일한 지적 존재냐?” “지구가 정말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장소냐?” 이 질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역사도 망가져버린다. 성경 전체를 보라.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존재요,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있는 곳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고페르 나무



방주는 과거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 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방주는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한 때 그 안에 있었고, 방주가 존재한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 된 인공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성경 역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욱 더 방주를 눈으로 보고 싶어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 방주가 아라랏 산(정확하게는 아라랏 산맥)에 멈추었다고 기록 되어 있고, 아라랏 산은 중동의 터-키 동부지방에 실제로 존재하며, 그 산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었고, 방주의 목재를 발견해 연대측정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어 방주에 대한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창세기 6:14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고페르 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들도 gopherwood, gopher wood, cypress wood 등 각각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 원본에는 “고페르 나무”로 되어 있다. “고페르 나무”는 과연 무슨 나무일까? 멸종된 수종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목재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창조과학자들은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 전나무, 백향목 등의 나무 이름이 아니라 합판(plywood)처럼 가공된 목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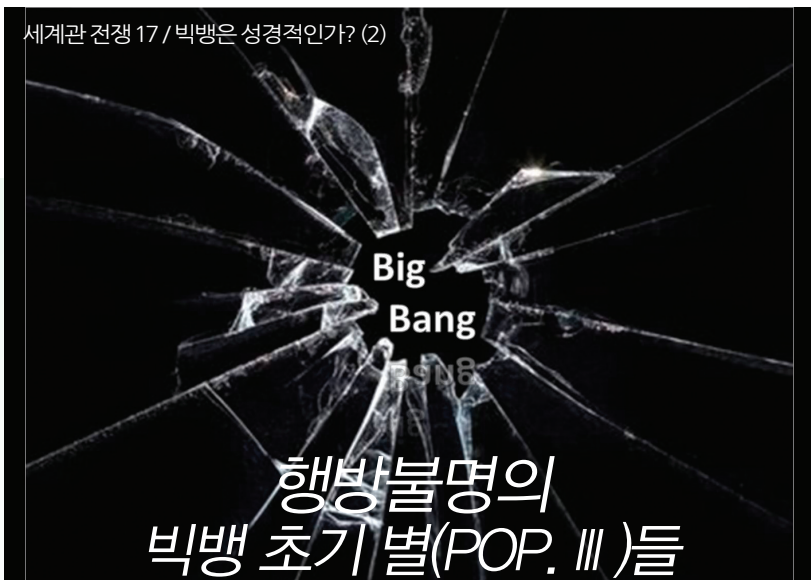
런 나무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페르(gopher)’라는 단어가 ‘역청’이란 히브리어 단어 ‘코페르(kopher)’와 음소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도록 했는데 만약 나무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려면 마치 합판을 만드는 것처럼 얇은 목재 판에 역청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얇은 목재 판을 직각으로 놓고 다시 역청을 바르고 ..., 이런 식으로 합판을 만들 때처럼 홀수의 얇은 판들 사이에 역청을 바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페르(역청)가 발라진 가공 된 나무를 ‘고페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이런 나무(합판)는 같은 두께의 판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튼튼한 목재가 될 것이다. 방주는 사나운 풍랑이 이는 물 위에 적어도 5개월 떠 있어야 했다. 물이 스며 들어 오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방주는 길이가 135 미터나 되었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비틀림 같은 힘에도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노아홍수는 심판 사건이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창세기 6:9).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속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역시 고페르나 코페르와 어원이 같은 ‘카파르(kaphar)’이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고페르나 코페르나 카파르가 똑같은 음소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역청(코페르)이 발라진 ‘고페르’는 속죄(카파르)의 피로 뒤덮인 한 폭의 방주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

방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목재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지금까지 아라랏 산에서 수집되어 방주의 목재일 것으로 주장하는 나무를 탄소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한 경우가 두 번 알려져 있다. 페르난도 나바라(Navarra)라는 프랑스 인이 1955년 수집한 목재는 AD 260~790년경으로 측정 되었으며, 지난 2010년 NAMI라는 탐사 단체에서 발견한 목재는 약 4800 년 전(BC 2800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연대 측정치들은 그것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얻은 나무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원리 자체에 들어 있는 잘못 된 가정 때문에 노아홍수 당시의 화석이나 석탄 등의 시료는 노아홍수가 있었던 4500여년 전이 아니라 대부분 5~6만년 전으로 측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수집한 목재는 방주의 것일 수 없고 결국 그들은 방주를 본 것도 아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는 발견 될 것인가? 잘 알려진 창조과학자인 험프리 박사는 방주가 머문 산이 아라랏 산에서 수 백 km 남쪽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동쪽에 있는, 산이었을 것이라는 최근 논문을 발표 하기도 하였다. 방주는 노아 가족들에 의해 해체 되었을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고페르 나무는 썩어 부식되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화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주가 실존 했을 수 밖에 없는데 전 지구적인 노아홍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규모의 지층들, 그 속에 들어 있는 화석들과 석탄 등이 부인할 수 없는 전지구적 홍수의 증거들이다. 현재 지구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조상들은 한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여 동안 머물러 있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빅뱅모델 자체로는 단지 세 개의 가장 가벼운 원소(수소, 헬륨, 미량의 리튬)들 만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약 90개 이상의 다른 원소들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한다. 빅뱅 지지자들이 쉽게 동의하듯이 빅뱅의 조건이 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형성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 인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그 중심의 핵 융합 반응으로 그 원소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이것은 초신성(슈퍼노바)이 폭발 할 때 마지막 단계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폭발 후에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갔고, 2세대 그리고 3세대의 별들이 이 소량의 무거운 원소들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초기에 존재하는 물질은 단지 이 3개 원소들이기 때문에 1세대 별들은 단지 3개의 가장 가벼운 원소들로만 구성되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별들은 수명이 빅뱅에 의한 우주의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므로 오늘날도 빅뱅 초기의 별들(Population III)이 존재해야 한다. 빅뱅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별들이 발견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별들은 미량이나마 무거운 원소(중원소) 들을 포함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 은하계 안에만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개의 가장 가벼운 물질들로만 구성된 별들은 단 한 개도 발견된 적이 없다.

빅뱅이론의 붕괴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 다른 문제점들이 수 없이 많음에도 소수의 천문학자들만이 빅뱅이론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빅뱅이론이 비록 현재까지 지배적인 모델이지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유효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증가 하고 있다. 2004년 5월 22일자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는 주로 일반 과학자들에 의해 쓰여 진 빅뱅 이론의 유효성에 도전하는 공개 서한이 실려 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임의의 가정들과 빅뱅의 예측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오늘날 빅뱅이론은 흑암물질(Darkmatter 가상물질)과 암흑 에너지(Dark Energy 가상에너지)와 같은 결코 관측되지 않은 가상적인 실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가상적인 실체들이 없으면 실제 관측 결과들과 빅뱅 이론의 예측 사이에 치명적인 모순들이 존재한다. 이론과 관측 결과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설을 계속 세워야 하는 물리학 분야는 없다. 적어도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 공개 서한의 진술에 여러 연구기관에 속한 수백 명의 교수와 과학자들이 서명하였다. 빅뱅이론이 인기를 크게 잃고 있는 듯하다. 과학자들이 빅뱅이론을 점차 거부하고 다른 모델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빅뱅 이론이 폐기 처분된다면 그 동안 성경이 빅뱅의 이론과 양립한다고 주장하고 말씀을 절충하고 타협하던 크리스천들은 어찌되는가? 이제는 그들이 성경이 빅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첨단과학의 기원모델을 가르친다고 주장할 것인가? 세상적인 기원의 모델들은 출현했다가 다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확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결론 앞에서 살폈듯이 빅뱅이론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잘못된 세계관에 기초한 증상들이다. 빅뱅은 우주가 초월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수십억 년 전에 자연과정에 의해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이론에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은 진화모델이 늘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증거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빅뱅 이론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라고 가르치시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Dr. Jason Lisle/Answers in Genesis의 강사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Master Books

**목사 지망생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을 보고
목회자 연구위원회는
염려하기 시작했다.
(고전 15:45)**





ITCM 탐사여행 중 Fossil Falls에서

정말 좋았다. 어떤 소감을 쓰든지 간에 그 소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좋았다는 말일 거다. 이전 아마 나쁜 아니라 ITCM 2기 사람들 모두의 생각일 거라 확실한다. 정말로 좋았다. ...

내가 변화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러한 사실은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다는 말에 나는 무너졌다. 비록 내가 볼품 없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변화된 이후 다시 한 번 나를 돌이켜 보니 나는 볼품 없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정제되지 못한 원석일 뿐, 정제되면 보석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ITCM에 온다면 노는 건커녕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니다. 하지만 ITCM에서는 여타 공부와는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부하는 창조과학이다. 따라서 배워도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또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일 안식을 얻는다. 또한 선교사님들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질문하고 하나 둘씩 풀어가면서 큰 행복을 느꼈다. 특히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누군지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가자 너무나 큰 안도감과 위로감과 행복을 느꼈다. ...

처음 미국에 도착하고서 부모님께 보낸 메일에 내가 이렇게 썼었다. “미국에 온 건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땐 이게 하나님의 초대이기를 바랐던 거지 확실한 건 아니었다. 왔다가 허탕 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 기대와는 상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였다. 나는 그 초대부의 부름에 응답했을 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다. 단순히 내가 변화되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품이 실재하며 그곳은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감격은 정말 커서 나만 느끼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면 쌓아두지 말고 생기는 족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보내드릴 거다. 가능하다면 우리 친척들만 따로 모아서 단체로 투어하고도 싶다. 또한 여기서 느낀 감격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알려 주었다.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장래 희망과 같은 게 아니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 박한길/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2년

... 앞부분 생략 ...

ITCM이라는 훈련과정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다고 결코 한 마디로 답을 수 없다. 이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되게 보고 있었는지,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무언의 압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느 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아마도 창조과학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진행되었던 아침 로마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큰 변화를 준 것 같다. 역시 말씀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전에는 하나님을 나뉘야 하는 시간이 있으면 부담이 되었던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게 되었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자신이 생겼으며 감사하고 놀라웠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다. 그토록 읽혀지지도 않고 펴고 싶지도 않았던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다시, 자세히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 곳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인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말했는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었다. 성경이 정말 사실임이 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닿게 된 것이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은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제는 진정 자유함이 생겼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나의 삶 속에 매우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억지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죄성이 나오는 순간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마음에 '아차!' 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됨에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쁘다.

창조과학은 단순히 진화론을 비판하거나 창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과학으로 성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과학을 통해 보는 것이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핵심으로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진화론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진화론에서 비롯된 사고인지도 몰랐고,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막대하게 퍼져 있는지 이 세상의 현실을 안타깝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진화의 반대는 결코 창조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

ITCM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지만, 이 사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간사님의 모습을 보고도 많이 느끼고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가짐임을 깨달았다. 내가 항상 바라고 부러워하던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그 분들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있기 까지 과정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도전이 되었다.

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 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생겼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 거짓말 같았는데, 그 분은 역시 거짓이 없으시고 쓰러지는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셨다. ITCM에서 배운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값지고 감사하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도와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최우성 선교사님, 그리고 두 간사님께 감사하다. - 신은유/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상담심리학부 2년

13 차 유학생 탐사여행

1/2 - 1/4/2012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는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 김단비/ 캔자스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처음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 이창훈 & 이지현/ 온누리교회 (LA)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과 거짓 증거들이 머릿속에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김유진/ Purdue 한인장로교회

미국 기독교의 몰락... 머리가 ‘땡’하더니 저의 경험을 비추어보아도 부정 할 수 없었습니다. - 강원모/ Purdue 한인장로교회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저 또한 진화론과 싸워왔습니다. 최신 무기를 얻고 갑니다. - 양병순 선교사/ 카자흐스탄

말씀으로 읽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 김신혜

과학을 공부하며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할 때 나도 모르게 져어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 김용관/ 샴페인 한인장로교회

‘나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갑니다. - 강성민/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왜 성경이 진리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 김우람/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이제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한지원/ 한동대학교 4학년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며 믿을 수 있고, 또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 나예인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 말씀이 100% 사실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 허충심

성경 속에서만 읽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니 실로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 이하식 목사

점점 나이가 들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이나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 생각이나 마음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기쁨

“처음이 가장 좋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지 몰랐습니다. - 유정상 목사

많은 의심과 불신으로 출발한 창조과학탐사여행.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변하여 떠납니다. - 김성환/ 새소망 침례교회, MI

직접 보게 됨으로, 알게 됨으로 나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 윤여선/ 새소망 침례교회, MI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이형주/ 새소망 침례교회, MI

창세기는 저에게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 김유진/ 새소망 침례교회, MI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 김종근 목사 & 김한나/ 새희망 선교교회

모태신앙... 더 분명하고 더욱 강렬한 주님의 존재하심과 완벽하심이 눈으로, 몸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 박규인/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UCSD

성경에 무지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소형준/ 캔자스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공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의 책을 읽어주면서 항상 연대와 멸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항상 괴로웠습니다. - 한진선 & 유정연/ 웨스트 LA 온누리교회, Fu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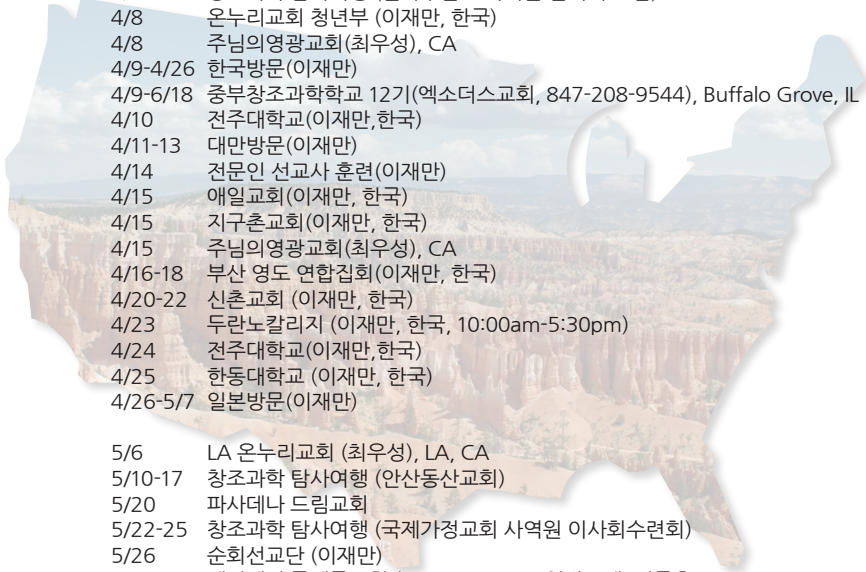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막 연했던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김시종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스스로를 기독교신자라 칭하면서도 진화론에 세뇌되어 성경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탐사여행이었습니다. - 임형준

먼저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한 목사인지를 ... 성경을 100% 신뢰하지 못했음을! - 이석민/ 발렌시아 샘물교회

● 후원해 주신 온누리교회들에 대한 감사가 특별히 많았음을 밝혀 둡니다.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ACT Schedule

- 
- 4/1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 4/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 4/8 온누리교회 청년부 (이재만, 한국)
 - 4/8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9-6/18 중부창조과학학교 12기(엑소더스교회, 847-208-9544), Buffalo Grove, IL
 - 4/10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 4/11-13 대만방문(이재만)
 - 4/14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재만)
 - 4/15 애일교회(이재만, 한국)
 - 4/15 지구촌교회(이재만, 한국)
 - 4/15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6-18 부산 영도 연합집회(이재만, 한국)
 - 4/20-22 신촌교회 (이재만, 한국)
 - 4/23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한국, 10:00am-5:30pm)
 - 4/24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 4/25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6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20 파사데나 드림교회
 - 5/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이사회수련회)
 - 5/26 순회선교단 (이재만)
 - 5/26-28 메이페어 구세군교회 (773-794-6240 일반트랙: 이동용, Youth Track: 김선옥), Chicago, IL
 - 5/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 5/27 얼바인온누리교회 창조주하나님 (이재만)
 - 5/28-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 5/31 Coffee Break (이재만),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